

영·유아기 타인양육이 학령전 어린이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early nonparental care on preschoolers' socioemotional behaviors

박 경 자**

Park, Kyung J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arly full-time nonparental care during infancy/toddlerhood on children's socioemotional behaviors during the preschool period.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05 three- to five-year-olds from middle-class families in the U. S. A. Children were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early care history.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with peers and caregivers during indoor free-play sessions in day care centers were observed for 20 minutes. The head teachers rated the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s on two questionnaires. Mothers completed the Attachment Q-sort for attachment assessment for the preschoolers. In addition, mothers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on their parenting practices.

Children who had received full-time nonparental care during infancy and/or toddlerhood were rated by their teachers as being more intellectually competent than children who did not receive full-time nonparental care during first three years of life. They were, however, rated by teachers and were observed by the researcher as being more aggressive than children with no full-time nonparental care. These children were observed to engage in less wandering/onlooking behaviors than children who had not had any full-time nonparental care. Children's attachment security scores and dependency scores did not differ as a function of early nonparental care histories.

When the effects of early care patterns, sex of child, and current attachment security to mothers on aggressive behaviors of the preschoolers were examined by a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then any "pure" effects of nonparental care and of attachment security on child aggression were minimal after controlling for family background, child care center quality, and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Strong buffering factors for the preschool children (family characteristics, parenting styles, and high quality nonparental care) mediated a possible risk factor of early nonparental care and promoted optimal outcomes for the children.

* 본 논문은 1991년 미국 Syracuse University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I. 서 론

급속한 취업모의 증가와 가족형태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는 어린이들의 양육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 유아를 위한 타인양육은 그 요구도 급증하고 있으며, 타인 양육을 받고 있는 영유아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타인양육이란 어린이가 어떤 형태로든 부모이외의 다른 성인에 의해 하루의 일정 시간 동안 양육되는 것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어린이 양육형태의 변화에 따라 타인양육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모들과 아동학자, 심리학자, 유아교육학자들의 주요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다.

타인양육에 관한 초기의 연구결과들은 타인양육의 영향에 관한 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주는 것이었다. 대부분 미국의 대학교 부설 탁아소에서 행해진 1970년대의 초기 연구들은 양질의 타인양육이 학령전 어린이들의 지적발달과 어머니와의 애착 발달, 사회정서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Belsky & Steinberg, 1978; Etaugh, 1980; Gamble & Zigler, 1986; Rutter, 1981). 특히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에 있어서, 전반적인 연구결과들은 중, 상류층의 비교적 혜택받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탁아 양육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Doyle, 1975; Macrae & Herbert-Jackson, 1976; Etaugh, 1980), 하류계층의 어린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elsky & Steinberg, 1978; Caldwell, Wright, Honig, & Tannenbaum, 1970).

영·유아기 동안의 타인양육이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초기 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타인양육이 어린이들의 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장, 단기적 영향에

학자 및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행해진 타인양육과 어린이의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연구결과의 해석도 학자들간에 논쟁이 되어왔다. 따라서 타인양육이 어린이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장, 단기적 영향의 검증은 Bowlby의 동물행태학적 이론(Bowlby, 1969; 1988)과 Ainsworth의 애착이론(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에서 강조하는 초기 유아-양육자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검증, 또는 수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최근에 행해지는 유아기 타인양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특별히 생후 1년 이내에 시작된 종일제 탁아양육이 그 후 어린이들의 동료와 어른들과의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타인양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Belsky(1986, 1988)는 “출생후 처음 일 년내에 주당 20시간 이상 타인양육을 받는 것은 유아기에 회피-불안정한 애착의 발달과 학령전기 및 초기 학령기에 공격성, 비동조성, 회피의 증가를 가져오는 위험요소이다”라고 결론지었다. Belsky는 종일 탁아양육을 받은 유아의 후의 행동은 어린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유아의 의심 또는 기본적 불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불신감이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관계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Phillips, McCartney, Scarr와 Howes(1987)는 현재 보고된 유아기 타인양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내의 긴장, 타인양육을 받기 시작할 때의 유아의 나이, 하루중 타인양육의 기간, 타인양육의 질 및 안정성 등의 변인들과 혼재해 있어 타인양육의 순수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유아가 생의 초기에 타인양육을 받았는가의 문제보다는 타인양육

의 종류 및 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취업모들의 급속한 증가현상을 보이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의 고조된 관심과 연구결과에 근거한 사회적 정책 결정과정을 위해 영아기 및 유아기에서의 어린이 양육형태와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가능한 관계의 규명은 매우 시급하다. 본 연구는 학령전 어린이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지적 능력과, 친사회적, 반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어린이-어머니간의 애착행동이 어린이들의 영·유아기 타인양육의 형태와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해보고자한다. 특히 본 연구는 타인양육이 시작된 시점과, 영·유아기 동안 타인양육을 받은 하루 중의 기간이 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어린이의 어머니와의 현재 애착정도, 가족의 인구론적 변인들, 현재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탁아기관의 질, 어린이의 성별, 어머니의 자녀양육 방법, 그리고 어린이의 영·유아기 타인양육 형태가 어린이의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국 중류 가정의 3-5세 어린이 105명(남아 53, 여아 52)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대다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였고(어머니의 79%, 아버지의 82%),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으며(아버지의 67%, 어머니의 70%가 Hollingshead(1975)의 직업분류에 의해 7 또는 그 이상의 직종에 종사), 85%의 어린이가 두 부모를 가지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출생 후 부터의 양육형태에 의해 다음 세 집단중의 하나로 구분되었다.

1집단 : 어린이가 생후 9개월 이전부터 종일제 타인양육을 받기 시작

2집단 : 어린이가 생후 9개월 이후부터 종일제 타인양육을 받기 시작

3집단 : 종일제 타인양육을 받지 않았음

본 연구에서 종일제 타인양육은 Belsky(1986, 1988)의 구분에 따라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일 주일에 20시간 이상 양육받는 것을 지칭한다. 이 세 연구집단 어린이들의 가정 배경을 비교해 본 결과 2집단 어린이들이($M=51.1$) Hollingshead에 의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1집단($M=56.2$)이나 3집단($M=56.2$)보다 의의있게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F[2,98]=3.72, p<.05$). 어린이의 연령, 성별, 부모의 연령, 학력 그리고 직업수준에서는 집단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2. 연구절차

미국의 한 중간크기의 도시에서 중류층 거주지에 있는 9곳의 탁아소와 유아원에서 연구의 피험자가 표집되었다. 연구의 대상을 표집하기 위하여 탁아소/유아원에 다니고 있는 3-5세 어린이의 부모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모의 연구에의 참여의사, 가정 및 부모의 배경적 정보, 어린이들의 출생이후의 양육형태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양육형태에 따라 연구대상 어린이들의 집단구분이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해 접촉된 전체 부모들 중 32%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어린이들의 사회정서적 행동은 교사의 평정과 자유놀이 시간동안의 행동 관찰에 의해 이루어졌다. 어린이들의 어머니와의 현재 애착의 안정성은 어머니용 Q-분석에 의해 평가되었고, 어머니들의 자녀양육방법은 질문지에 의해 조사되었다. 교사들의 교육수준, 현 기관에서의 근무년수 등 교사에 의한 정보는 교사 면접을 통해 수

집되었다.

3. 연구도구

1) 교사평정

연구대상 어린이들을 평균 12개월간 지도한 각 반의 주교사들은 연구대상 어린이들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2개의 평정척도에 의해 평가하였다. 유아용 행동 질문지(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 Behar & Stringfield, 1974)는 3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들은 각 어린이들의 사회 정서적 및 성격상의 문제 행동들을 3점 척도, 즉 0점(해당사항 없음)에서 2점(확실히 해당됨)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용 행동 척도(The Preschool Behavior Rating; Schwarz, Strickland, & Krolick, 1974)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9가지 행동 경향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에 있어 교사의 배경효과(halo effect)를 통제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연구의 목적과 어린이들의 집단구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이 두가지 연구도구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 주는 Cronbach alpha는 유아용 행동 질문지(PBQ)는 .87이었고, 유아용 행동 척도(PBR)는 .66이었다.

2) 사회적 상호작용 관찰

연구대상 어린이들의 동료 및 교사와의 긍정적, 부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은 각 어린이들의 교실에서 실내 자유놀이 시간동안 하루에 5분씩 4일간, 총 20분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되었다. 녹화된 어린이들의 사회적 행동은 매 20초간의 시간 간격으로 분석되었고, 이 시간 간격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들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이 분석되었다. 어린이들의 동료 및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부정적인 상호작용, 교사와의 동조성

및 비동조성, 도구적 도움 요청, 정서적 불안감 등이 분석되었다. 관찰의 신뢰도는 1명의 관찰자와 연구자간에 비디오로 녹화된 20명의 어린이 행동을 기초로 산출되었는데, 관찰자 간에 평균 97.4%의 일치도를 얻었다.

3) 부모용 애착행동 Q-분석

어린이들의 애착행동은 개정판 애착행동 Q-분석(Attachment Behavior Q-set)에 의해 측정되었다(Waters, 1987). 본 연구에 사용된 Q-분석 도구는 9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를 1주일간 관찰한 후, 다양한 애착 행동을 1군(내 자녀와 전혀 같지 않다)에서 9군(내 자녀와 가장 비슷하다)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의 Q-분석 신뢰도는 3-5세 어린이 10명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Q-분석과 관찰자의 Q-분석간의 일치도로 측정되었다. Q-분석의 일치도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예비연구 대상 어린이의 집에서 1주일의 간격을 두고 2회의 관찰(3-4시간 지속)을 하고 그에 기초하여 Q-분석하였다. 어머니와 연구자 분류결과는 상관계수로 일치도를 산출하였는데 어머니와 연구자간에 평균 $r=.74$ 의 상관계수를 얻었다.

4) 부모의 자녀양육실태

부모의 자녀양육 실태는 Slater와 Power(1987)에 의한 자녀양육 질문지(The Parenting Dimensions Inventory)로 조사되었다. 이 도구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nurturance), 반응성(responsiveness), 일관성, 통제의 양, 그리고 통제의 유형등 5가지 차원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방법을 측정한다.

III. 연구결과

1. 교사평정에 의한 사회정서적 행동

1) 유아용 행동 질문지(PBQ)

어린이들의 성과 초기 양육형태에 따른 교사평정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PBQ의 3가지 요인과 PBQ 총점에 대한 2(성)×3(양육형태) 이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원변량분석결과 PBQ총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F(2,99)=3.09, p<.05$). 이 집단간 차이는 특히 1집단($M=10.0$)과 2집단($M=9.8$) 어린이와 3집단($M=6.8$) 어린이의 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F(1,99)=6.17, p<.05$). 즉, 동일제 타인양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그들의 타인양육이 애착이 형성되는 9개월 이전에 시작되었던 9개월 이후에 시작되었던 간에 그들의 주임교사에 의해 동일제 타인양육의 경험이 없는 어린이들보다 더 많은 사회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에서 얻어진 총 PBQ 점수에서의 차이가 어느 영역에서 얻어진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Behar가 추출해 낸 적대적-공격성, 불안-두려움,

과민성-주의산만의 세 요인에 있어서의 집단간 차이를 이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적대적-공격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F(2,99)=3.81, p<.05$). 집단간 차이를 사후 검증해 본 결과, 1집단($M=3.9$)과 2집단($M=3.5$) 어린이들이 3집단($M=2.0$) 어린이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공격성점수를 보였다(표 1 참조). 즉 이제까지 그들이 받은 타인양육의 정도에 따라 학령전 어린이들은 교사에 의해 다르게, 특히 공격적 행동에 있어 다르게 평가되었다. 동일제 타인양육을 받아 온 어린이들은 그것이 9개월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던 간에 동일제 타인양육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들보다 더 많은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 특히 반사회적/공격적 상호작용(다른 어린이들과 싸운다, 자신 및 동료들의 물건을 부순다, 다른 어린이들을 차거나/깨물거나/때린다, 다른 어린이들에게 핏계를 댄다)을 보이는 것으로 교사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또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적대적-공격적 행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

〈표 1〉 PBQ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요 인	집 단			F	성 별		F
	1	2	3		남	여	
적대적-공격성	3.9 (3.8)	3.5 (4.3)	2.0 ^a (3.0)	3.81*	4.4 (4.2)	1.9 (2.8)	15.30**
불 안-두려움	3.1 (2.9)	2.7 (2.7)	2.3 (2.1)	—	2.5 (2.7)	2.9 (2.5)	
과민성-주의산만	2.0 (2.0)	2.4 (2.5)	1.8 (1.8)	—	2.4 (2.1)	1.7 (2.1)	

주: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a 1집단과 2집단의 평균($M=3.7$)은 3집단의 평균($M=2.0$)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

* $p<.05$. ** $p<.01$

다($F(2, 99) = 15.30, p < .01$). PBQ 총점과 세 하위요인들에 있어 유의있는 성별과 집단간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2) 유아용 행동 평가(PBR)

어린이의 성과 유아기 양육 형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BR의 세 요인, 즉 사회적 양립성 (social compatibility), 사회적 주장성 (social assertiveness) 과 지적능력 (intellectual competency)에 대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적능력의 요인에서만 유의한 영·유아기 양육형태의 효과가 발견되었다($F(2, 99) = 4.79, p < .01$). Scheffé에 의한 사후 검증 결과

1집단 어린이들($M=11.5$)이 3집단 어린이들($M=9.7$)보다 교사들에 의해 지적능력(문제 해결능력, 추상능력)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평가됨이 검증되었다(표 2 참조). 사회적 양립성과 사회적 주장성의 요인에서는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세 요인 모두에 있어 유의한 성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생후 9개월 이전에 종일제 타인양육을 시작한 어린이들이 종일제 타인양육을 경험하지 않은 어린이들 보다 교사에 의해 지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아용 행동 평가(PBR)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PBR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요 인	집 단			F	성 별		F
	1	2	3		남	여	
사회적 동조성	11.2 (2.4)	11.5 (2.5)	11.1 (2.3)	—	10.8 (2.5)	11.7 (2.2)	—
사회적 자기주장성	11.0 (1.5)	11.0 (1.5)	11.1 (1.3)	—	11.0 (1.4)	10.6 (1.5)	—
지적 능력	11.5 (2.4)	11.0 ^a (2.9)	9.7 ^b (2.2)	4.79**	10.9 (2.6)	10.7 (2.6)	—

주 :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a 2집단과 3집단의 평균 차이는 Scheffé의 사후 검증에 의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임.

^b 1집단과 3집단의 평균 차이는 Scheffé의 사후 검증에 의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임.

** $p < .01$

2. 사회적 상호작용 관찰

학령전 어린이들의 자유놀이 시간동안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집단간의 차이는 MANOVA 또는 ANOVA로 검증되었다. 어린이들의 동료 및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있어 유의

한 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MANOVA 검증결과 동료와의 부정적 상호작용(도구적,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그리고 동료 거부 및 놀이집단에서의 배제)에 있어서는 유의한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Wilks' lambda = .82, $F(8, 192) = 2.42, p < .05$; 표 3 참조). 영아기

이후 종일제로, 즉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타인양육을 받아 온 어린이들은 종일제 타인양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보다 자유놀이 시간에 동료들에게 더 많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공격적 행동의 각 항목에서 ANOVA에 의해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동료의 거부 및 놀이집단에서의 배제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동료의 거부 및 놀이집단에서의 배제에서 집단 간 평균을 사후검증해 본 결과 1집단($M=0.5$)과 2집단($M=0.8$) 어린이들이 3집단($M=0.2$) 어린이들 보다 동료들을 유의하게 더 많이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동조성과 비동조성에 있어서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ANOVA로 검증되었다. 교사와의 동조성에서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교사와의 비동조성은 연구대상의 모든 어린이들에 있어 비교적 적게 나타났는데, 특히 3집단 어린이들에 있어서는 10,200번의 관찰단위 중 교사와의 비동조성이 단지 3회만 관찰되었다. 이러한 집단 3에서의 비동조성의 희귀성은 ($M=0.03$) 집단간 평균의 사후검증에서 집단 1($M=0.2$)과 집단 2($M=0.1$) 어린이들의 평균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 99)=3.96, p<.05$).

집단간의 놀이형태의 차이는 Parten(1932)의 놀이 형태에 기초하여 MANOVA로 검증하였고,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Wilks' lambda

〈표 3〉 관찰자료의 양육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1 (n=37)	2 (n=34)	3 (n=34)	F
	M (SD)	M (SD)	M (SD)	
동료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15.1(8.2)	12.0(6.0)	14.1(7.9)	-. ^a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4.9(4.3)	4.9(2.8)	3.2(3.0)	-. ^a
동료와의 공격성	4.0(3.7)	3.8(3.6)	2.4(2.1) ^c	2.42* ^a
교사와의 동조성	1.2(1.4)	1.2(1.3)	1.2(1.2)	-
교사와의 비동조성	0.2(0.5)	0.1(0.4)	0.03(0.2) ^d	-
정서적 불안	0.9(2.9)	1.2(2.2)	0.5(0.9)	2.46* ^a
도구적 도움 청함	0.5(0.8)	1.0(1.4)	0.8(1.3)	-
배회/방관자적 행동	10.3(7.4)	10.8(5.4)	14.9(6.9) ^b	5.06**
단독놀이	7.5(6.8)	7.8(7.7)	6.7(7.9)	-
병행놀이	25.6(10.4)	25.3(12.3)	22.2(10.3)	-
연합놀이	18.9(11.1)	18.1(8.9)	18.0(11.4)	-

^a F 검증치는 MANOVA의 결과임.

^b 1집단과 3집단, 2집단과 3집단의 차이는 Scheffé의 사후검증에 의해 유의한 차이임.

^c 집단 1과 집단 2는 집단 3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1+2:3).

^d 집단 1의 평균은 집단 2, 집단 3의 평균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1:2+3)

* $p<.05$. ** $p<.01$

=0.88, $F(4, 99) = 3.24, p < .05$). 단독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배회/방관자적 행동(onlooking)에서 유의한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3집단 어린이들($M=14.9$)은 1집단($M=10.3$)이나 2집단($M=10.8$) 어린이들보다 배회/방관자적 행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였다.

3. 어머니와의 애착행동

연구대상 어린이들의 현재 어머니와의 애착의 안정성은 어머니들이 분류한 Waters(1987)의 애착의 Q-분석과 Waters 등이 제시한 “규준 분석”과의 상관계수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애착의 안정성 점수는 본 연구대상 어린이들에 있어 .004에서 .76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44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성과 유아기동안의 양육형태가 애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2×3 ANOVA로 분석되었다.

애착의 안정성 점수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집단 어린이들의 애착점수의 평균($M=.42$)은 2집단($M=.46$) 또는 3집단 어린이들의 애착점수의 평균($M=.44$)과 다르지 않았다. 즉, 3-5세 어린이에게 있어서 영, 유아기동안의 타인양육 형태는 어머니와의 애착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머니들에게 지각되었다.

또한 애착점수는 성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집단 남아들의 애착점수 평균($M=.38$)이 2집단($M=.44$)이나 3집단($M=.43$)의 남아들, 또는 여아들(세 집단 모두에게 $M=.47$)보다 가장 낮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부모의 자녀양육방법

부모로부터의 질문지를 통해 조사된 본 연구대

상 어머니들의 자녀양육방법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의 자녀양육방법에 있어서의 집단별, 성별 차이는 2×3 ANOVA로 자녀양육의 하부요인들의 총점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애정적 양육(nurturing), 어린이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반응성,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일관성, 통제에 양에 있어서는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통제 유형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있어, 1집단 어린이의 어머니들과($M=8.0$) 3집단 어머니들이($M=8.1$) 어린이를 방으로 보내거나 의자에 앉혀 고립시키는 등의 “사회적 통제”를 2집단 어머니들($M=6.0$)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F(2, 90) = 3.42, p < .05$). 또한 1집단 어머니들은($M=14.4$) 3집단 어머니들($M=13.4$)보다 “이유를 알려주기(reasoning)”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F(2, 90) = 4.25, p < .05$). 또한 어린이들을 훈육할 때, 1집단($M=13.9$)과 2집단($M=14.4$) 어머니들이 “규칙을 다시 일깨워 주기”를 3집단 어머니들($M=13.0$)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F(2, 90) = 3.64, p < .05$).

또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있어, 어린이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어머니들은 여아나 남아에게 동일한 양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 공격성

영, 유아기의 종일 타인양육과 학령전기에 공격성의 증가간의 관계는 선행연구들에서(Belsky, 1988; Field, Masi, Goldstein, Perry & Parl, 1988 등), 또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학령전 어린이들에게 있어 영·유아기 타인양육 형태, 어린이의 성별, 어머니와의 현재의 애착의 안정성이 어린이의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odel)이 실시되었다.

가정환경변인(Hollingshead에 의한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결혼상태, 어머니의 교육정도), 탁아기관의 질(교사의 교육정도, 교사의 현 기관에서의 근무년수),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방법(어머니의 반응성, 어머니가 행사하는 통제의 양)은 어린이의 공격성측정에서 공변인(covariance)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변인들을 통제 한 후, 영·유아기 타인양육 형태, 어린이의 성별, 그리고 현재 어머니와의 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정도가 위계적 회귀분석모델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들의 공격성은 교사의 평가와 자유놀이 시간의 관찰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 두가지 공격성을 각각의 종속변인으로하여 두가

지 위계적 회귀분석모델이 적용되었다.

1) 교사 평가에 의한 공격성

교사 평가에 의한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든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 한 후, 어린이의 양육집단은 교사 평가에 의한 공격성 변량의 1%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어린이의 성별은 교사 평가에 의한 공격성 변량의 11%, 어머니와의 애착의 안정성은 1% 미만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 가정의 인구론적 특성은 교사 평가에 의한 어린이 공격성의 11%를, 교사의 교육정도와 안정성은 8%,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성과 통제의 정도는 7%의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유의한 변량의 증가이었다.

<표 4> 위계적 회귀분석모델에 의한 각 변인들이 어린이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검증

	교사평가에 의한 공격성			자유놀이 시간에 의한 공격성		
	R ² 증가	전체 R ²	F	R ² 증가	전체 R ²	F
가정의 인구론적 변인	.114	—	4.28**	.045	—	1.55
탁아기관의 질	.075	.189	4.53**	.069	.114	3.82**
부모의 양육방법	.068	.257	3.94**	.062	.176	3.24**
양육 집단	.010	.267	—	.017	.193	—
어린이의 성별	.109	.376	14.50**	.071	.264	8.01**
애착의 안정성	.007*	.383	—	.037	.301	4.23**

* p<.05. ** p<.01

2) 관찰에 의한 공격성

자유놀이 시간 동안의 관찰에 의한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든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 한 후, 어린이의 양육 집단은 교사 평가에 의한 공격성 변량의 2%, 어린이의 성별은 7%, 어머니와의 애착의 안정성은

4%를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의 성별 및 애착의 안정성이 기여한 변량은 관찰된 어린이의 공격성에 유의한 변량의 증가이었다. 그리고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 가정의 인구론적 특성은 교사의 평가에 의한 어린이 공격성의 5%를, 교사의 교육정도와 안정성은 7%,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성과 통계의 정도는 6%의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유의한 변량의 증가였다.

IV. 논의 및 결론

영·유아기에 다양한 정도의 타인양육을 경험한 어린이들의 학령전기의 발달을 살펴본—사회정서 영역을 중심으로—본 연구는 영, 유아기 타인양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복잡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타인양육 형태에 기초한 집단간의 비교를 하였을 때, 종일제 타인양육이 시작된 시점(생후 9개월 이전 또는 이후) 뿐 아니라 하루 중 부모와 격리되는 시간(종일제 또는 부분제)도 학령전 어린이들의 인지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후 1년 이전에 종일 타인양육을 받은 3-5세 어린이들은 생후 1년 이후에 타인양육이 시작된 어린이들보다 지적으로 더 능력이 있으나(교사평가), 동료들에게 더 공격적이며(교사평가 및 행동관찰), 교사에게 더 비동조적인 것으로(행동관찰) 나타났다. 그러나,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하면 그러한 집단구분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어린이들의 공격성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었다. 즉,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어서, 어린이의 성별은 교사평가에 의한 공격성의 11%와 관찰에 의한 공격성의 7%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가정의 SES, 부모의 결혼상태,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교사평가에 의한 공격성의 11%, 관찰에 의한 공격성의 5%를 설명하였다.

탁아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결과는 어린이의 공격성에 미치는 탁아기관의 질적 측면이다. 영, 유아들의 타인양육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몇시간이나 타인양육을 받았는가의 변인은 교사평가에 의한 공격성의 1%

와 관찰된 공격성의 2%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정도와 안정성(한 기관에서의 근무년수)은 교사평가에 의한 공격성의 8%와 관찰된 공격성의 7%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탁아양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훈련 및 자질있는 교사들의 이직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부 및 사회기관의 보조와 협조는 영아기 종일 타인양육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하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녀양육방식이 어린이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관찰된 공격성의 6%와 교사에 의한 공격성의 7%. 따라서, 부모 및 곧 부모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자녀훈육방법, 효과적인 대화의 방식, 반응적인 부모역할, 친사회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어린이의 자존감과 인지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녀양육 방법등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Park & Honig, 1991). 그와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와, 질적으로 우수한 타인양육을 위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우리는 타인양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언제, 얼마나 타인양육을 받기 시작했는가에 관계없이 발달상에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ehar, L. B., & Stringfield, S. (1974). A behavior rating scale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601-610.

-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5), 1-7.
- Belsky, J. (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Belsky, J., Steinberg, L. D. (1978). The effects of day care: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49, 929-949.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Y: Basic Books.
- Caldwell, B., Wright, C., Honig, A., & Tannenbaum, J. (1970). Infant day care and attach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0, 397-412.
- Chase-Lansdale, P. L., & Owen, M. T. (1987). Maternal employment in a family context: Effects o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8, 1505-1512.
- Clarke-Stewart, K. A. (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93-318.
- Doyle, A-B. (1975). Infant development in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55-656.
- Etaugh, C. (1980). Effects of nonmaternal care on children: Research evidence and popular views. American Psychologist, 35, 309-319.
- Field, T., Masi, W., Goldstein, S., Perry, S., & Parl, S. (1988). Infant day care facilitates preschool social behavio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341-359.
- Gamble, T. J., & Zigler, E. (1986). Effects of infant day care: Another look at the evid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26-42.
- Hollingshead, A. B. (1975). Four-factor index of social status. Unpublished manuscript. Yale University.
- Honig, A. S. (1985). High quality infant/toddler care: Issues and dilemmas. Young Children, 41(1), 41-46.
- Honig, A. S. (1990). Infant/toddler education issues: Practices, problems, and promises. In C. Seefeldt (Ed.), Continuing issu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p. 61-105). Columbus, Ohio: Merrill.
- Lamb, M. E., Thompson, R. A., Gardner, W., & Charnov, E. L. (1985). Infant-mother attachment: The origin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nge situation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Macrae, J. W., & Herbert-Jackson, E. (1976). Are behavioral effects of infant day care program specific? Developmental Psychology, 12, 269-270.
- Park, K. & Honig, A. (1991). Infant child care patterns and later ratings of preschool behaviors. Paper presented at 99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t San Francisco, August.
- Parten, M. (1932). Social particip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 and Social Psychology, 27, 243-269.
-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 (1987).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37-543.
-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 & Howes, C. (1987). Selective review of infant day care research: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7(1), 18-21.
- Rutter, M. (1981). Social-emotional consequences of day care for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4-28.
- Schwarz, J. C., Strickland, R. G., & Krolick, G. (1974). Infant day care: Behavioral effects at preschool age. Developmental Psychology, 10, 502-506.
- Slater, M. A., Power, T. G. (198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in single-parent families. In J. P.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action, assessment and theory (Vol. 4, pp. 197-228). Greenwich, Conn: JAI.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6, pp. 41-83).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A., Egeland, B., & Kreutzer, T. (1990). The fate of early experience following developmental change: Longitudinal approaches to individual adaptation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63-1373.
- Vandell, D. L., & Corasaniti, M. A. (1988, April). Variations in early child care: Do they predict subsequent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ifferenc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Washington, DC.
- Vaughn, B. E., Deane, K. E., & Waters, E. (1985). The impact of out-of-home care on child-mother attachment quality: Another look at some enduring questions.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110-1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Waters, E. (1987). Attachment Behavior Q-set (Version 3.0). Unpublished manuscrip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Stony Brook, NY.